

‘가르침’으로 하나되는 세상과의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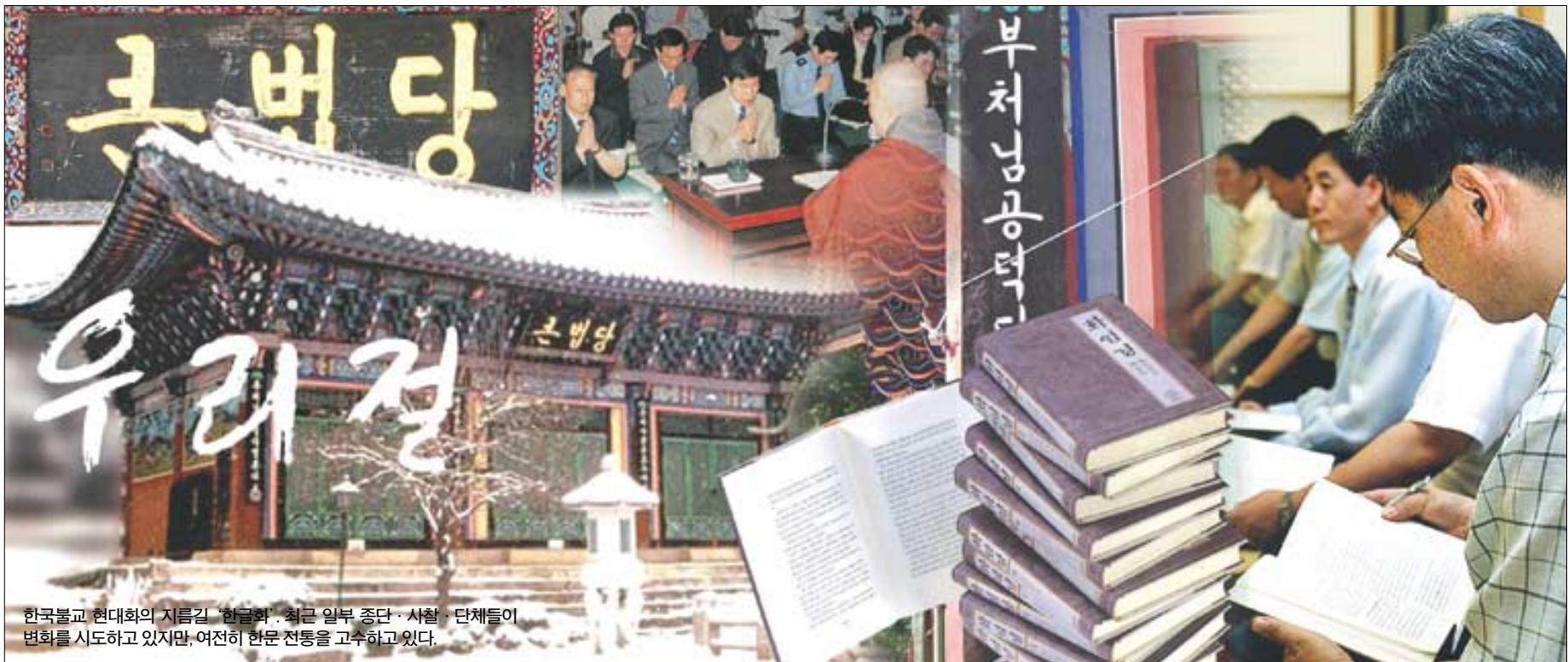
교통·통신·정보의 혁명은 기존의 질서와 관념을 거부한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무한질주’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왔고, 또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수용동력은 완전히 무차별적이다. 이념, 종교, 가치관, 생활양식 등등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도 그에 못지않은 화두가 되었다.

불교 역시 그 수용동력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오늘날의 불교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불교에 ‘현대화’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불교의 현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 현대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내(불교)만 알고 있던 것을, 나만 알아도 됐던 것을 너(모두)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 혼자만의 독백에 그치지 않는 불교와 세상 불교와 대중과의 쌍방향 대화, 바로 그 대화 방식을 찾는 것이 현대화인 것이다. 그것은 곧 시대흐름에 부합하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인 것이다.

불교의식을 한글화하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전산화하고, 불교음악과 미술에 현대적 기법을 접목하고, 불교 정보와 이미지를 디지털화 하는 것도 바로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불교의 대중화에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작업이 미래에는 ‘전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화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신라시대 건축인 석굴암은 구조기법이나 공간형식으로 볼 때 당시 가장 현대적이지 최첨단 하이테크 건축기술로 지은 건물이다. 적당히 과거의 전통에 얽매어 만들었다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통은 그렇게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다. 현대화는 이렇게 미래의 불교 전통을 세우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불교 현대화의 현주소는 걸음마 단계다. 경전 번역과 전산화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단계지만 불교의식이나 정보화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 불교문화 역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처지다.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응용은 더욱 심각하다. 불교적 시각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정리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자들이 ‘응용불교’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도, 불교가 바로 이 시대의 ‘생활’의 문제에 답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국불교 현대화의 지원길 '한글화'·최근 일부 종단·사찰·단체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문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쉽고 친숙한 불교’로 새 옷 입자

의식·경전 한글화

■현대화의 바로미터 ‘한글화’, 그 현주소는?

현재 한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의 우리말 번역. 동국역경원은 지난 2001년 해인사 대장경의 한문 틀을 벗기고, 317권의 한글경전으로 대장경을 탈바꿈시켰다. 모든 경전을 한글로 옮긴 한글완역본 완간은 한국 불교 현대화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글대장경의 전산화 작업도 뒤따랐다. 동국역경원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 손잡고 전산화 사업을 추진, ‘종이 경전’을 ‘사이버 언어’로 다시 바꾸고 있다. 또 한글대장경에 대한 개역사업도 착수, 번역 기간 37년의 한글번화 간극도 없애는 등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일단, 경전에서 만큼은 현대화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교는 여전히 ‘과거의 옷’을 입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과 단체들이 아직도 한문부의 불교의식, 경전 독송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지난 1965년 동국역경원이 번역한 한글 <반야심경>을 종단 공식번역문으로 채택해 한글의식 운동을 전개했지만, 지금 한글 <반야심경>이 독송되는 곳은 서울 분선사, 불광사, 대각사, 정심사, 대한민국경찰불교회 등 일부 사찰과 단체에 불과하다.

한글대장경 ‘우리글 경전’의 이정표 제시 사찰이름·주련·현판 한글화 호응 높아

스님들의 법어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종단에서 부처님오신날, 결제, 해제, 신년 등이면 어김없이 한문 위주의 법어가 나온다. 웬만한 불자가 아니고서는 법어의 뜻을 짐작해보기가 어려워 한글법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 한글화는 왜 필요한가. 대중이 ‘알기 쉬운’ 불교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 묻힌 고어(古語)를 팔팔 뛰는 ‘활어(活語)’로 바꿔야 한다는 불교계의 절박한 현실인식도 한 이유다. 결국 경전은 ‘읽어야’ 되고, 의식은 ‘친숙해져야’ 불교가 현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모친의 천도재를 마친 직장인 L(34·서울 서관동)씨가 털어놓는 하소연에서도 한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49제는 올렸지만, 정작 알아들을 수 없는 스님의 말에 매주가 힘들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재를 올려야 했지요. 왜 쉬운 한글을 나누고 어려운 한자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불교의 한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님들의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박한 한문해독능력을 통한 출가자의 전문성 확보와 출가자로서 위의를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 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글로는 정확한 뜻을 담아내기 어렵고, 종교적 장엄미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식 시간이 길어지고, 운율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한글화’는 계속돼야 한다

불교의 한글화에 대한 노력과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한글로 된 사찰 이름, 주련, 현판 등이 늘고 있고, 조계종 포교원이 <한글통일법요집, 천도, 다비> 편 교정을 마치고 법회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의 경우, 올 1월부터 정기법회 때 ‘한글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경찰 불교회가 자체 제작한 ‘한글법요집’을 갖고 매주 목요일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한편, 의식도 순한글로 집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100여 명의 화원들의 반응도 좋아 다른 경전도 한

글로 독송할 계획이다. 경찰청 불교회 박희영 총무(53·정보통신2과)는 “이제는 마음속에서 뜻을 새기면서 경전을 읽고 있다. 왜 진작에 이런 시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한글화는 사찰의 이름, 주련, 현판 등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글이름 절은 전국 20여 곳에 달한다. 서울 ‘마음의길’, ‘산이깊은길’, ‘부처님계신길’, 광주 ‘연꽃피는길’, 경기 이천 ‘우리길’, 전남 곡성 ‘작은길’ 이외 ‘마음고요선방’, ‘부름정사’ 등 이름도 다양하다.

지난 98년 경기 곤지암에 개설한 ‘우리길’ 주지 동봉 스님은 “이름을 한문으로 해야 ‘사찰답다’는 선입견은 한글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사찰의 현판과 주련도 한글화 바람에 예외가 아니다. 남양주 분선사, 철보사 등은 ‘큰법당’으로, 어린이포교에 선두주자인 화성 신흥사는 아예 ‘어린이법당’이란 이름으로 현판을 달았다.

<한글불교의식집> 발간하는 등 불교의식의 한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의식 한글화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자 우리식 불교를 자리매김하는 불사”라며 “종단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상설기구를 만들어 운영, 해석, 표기법, 운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명우·김철우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자미두수 입문

※ 4×6배판 변형판 424쪽, 부록 명반배치 CD포함. 저자:이두 김선호. 2004년 8월 발간.



자미두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하여 만든 책. 자미두수 명반배치와 명반보는 법을 기초로 14정성과 집성을 열매하게 풀이하여 명반배치 순서를 밝혀 놓았다. 천지인반을 수록한 CD 포함. 혼자서도 가능함.

자미두수입문을 보고, 실전자미두수, 심곡비결, 자미두수전서를 참고로 보면 자미두수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음.

▶ 심곡비결

※ 4×6배판 700여쪽. 43,2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7월 발간



인조변정의 성공을 예측하며 수경을 3년 늘린 심곡선생의 미결서!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지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어째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발달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번역. 저자: 이두 김선호



▶ 자미두수 CD (전문가용)

※ 자미두수cd, 매뉴얼. 제작: 대유연구소. 가격: 400,000. 출시기념으로 10월말까지 350,000원에 판매합니다.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자미두수 명반이 포국되고 명반의 별을 클릭하면 별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이 된 자미두수입문+실전자미두수+심곡비결+자미두수전서의 내용이 들어있음. 주역점 기문포국 등이 부록으로 딸려있음

▶ 음부경과 소서 심서

천부경과 대가 되는 음부경, 한나라 고조를 도와 중국을 통일하게 한 장량의 비책이 이 책에서 나왔다고 하는 체체철학 중의 최고봉 ‘형석공의 소서, 상국지의 주인공 제갈량의 꾀법비책이 담긴 심서. 총 3권 22,000원



▶ 주역입문(周易入門2)

※ 변형 4×6배판 360쪽 15,000원. 저자: 김수길, 윤상철



하도에서 선천팔괘가 나오고 너서에서 후천팔괘가 나오는 주역의 원리를 알기쉽게 풀이 +주역 전반에 대한 개괄설명

▶ 근간안내

총용2, 법문대법 9일강의 비디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대유학당